

지속가능발전위원회

합의를 이끌고 그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 사회 통합

선진국은 이러한 갈등해결을 위한 큰 틀과 세밀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으며 공정성에 대한 신뢰, 전문성과 지성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일이 필요합니다.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하다 보면 수도권 위주의 사고가 전체를 지배할 수 있으며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.

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합의하고 설득하며, 프로세스를 통해 승복하게 하는 문화를 만들면 국민들도 높은 자신감을 갖게 되고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. 국민정서와 문화가 한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.

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‘공정한 지성의 배심’ 역할이지만, 앞으로 더욱 역량을 갖추게 되면 ‘합의의 법정’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. 이를 위해서는 소신을 가져야 합니다. 굽히지 않는 소신이 아니라 대화하고 설득하고 논리와 검증과정을 거치며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하는 소신이어야 합니다. 합의가 되지 않아 표결로 간다 해도 그 결과에 승복하고 우리의 결정이 아니라, 나의 결정으로 받아들이며 결정을 변론하는 것이 사회 통합입니다. 합의에 이를 수 있고 합의에 기꺼이 승복할 줄 아는 사회가 통합된 사회입니다.

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반드시 하나의 결론에 도출해 내기를 바라며 위원회의 고유한 가치를 대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, 갈등해결에 있어서는 공정성, 신뢰성을 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비전과 전략도 세우겠지만, 한단계 한단계 (step by step) 문제를 해결하는 전술도 마련해야 할 것이며 높은 수준의 목표를 세우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성공적인 모습을 기대합니다.